

2021년 제7회 이사회 시·도회장합동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21. 6. 14(월) 16:00 ~ 18:00

2. 장 소 : 줌 화상회의

3. 참석자 : 총 12명

○ 회 장 : 임종규 회장,

○ 부회장 : 한선(수석), 홍경화, 정영재, 이병우

○ 시·도회장 : 안상성, 정상석, 황동길, 고영대, 유영만, 송석봉 ○ 감사 : 이재윤

○ 간 사 : 김재식

4. 보고사항

가) 전차회의록 및 발전위원회 회의록 보고

나) 업무보고

5. 심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전기안전연합회 현안 검토의 건

-5월21일 실시한 안전관리 대행세미나 및 기술인협회에서 6월10일 실시한

안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의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의견들을 교환하다.

- ① 의장이 발전위원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술인협회에서 추진한 통합추진 위원회(6.10)에 불참하게 된 이유와 기술인협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대행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을 설명하다.
- ② 한선 수석부회장이 기술인협회장과의 면담(6.4)에서 안전연합회 입장(세미나가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통합추진위원회 불인정 의사를 밝힘)을 전달한 내용과 서울시회의 회장단과의 면담 내용(과거 불편했던 사항들과 향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함)을 설명하고 6월24일에 이상인 대표를 통해 통합추진 위원회와 발전위원회에서 3명씩 만나기로 한 내용을 설명하다.
이어서 통합추진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통해 추이를 보면서 우리의 입장 표정을 하고 24일 만남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말하다.
- ③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역할도 위임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발전위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고 일련의 일들이 기술인협회 주도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합회가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고 사명이다.
기능하면 대표 3명이 만나는 거 보다 시·도회장 전체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대행협의회 의장은 안전연합회 회장이어야 한다.
- ④ 현 상황에서 안전연합회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연합회 당위성이 홍보가 안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 ⑤ 현 상황에 대해 일반회원들과의 대화 필요성도 검토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준비중이어서 전체적인 대화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울시회 문제부터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지하다.
- 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며 안전연합회 존속하에 안전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통합추진위원회와 만나게 될 날자와 참석자 3명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다.
 - 의장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위원회가 이성적으로 대책을 잘 수립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서 전국적인 조직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하고 대행업계 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폐회하다.

위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확인함.

2021. 6. 14

한국전기안전연합회	회장	임종규 ⑨
수석부회장	한선	⑨
부회장	홍경화	⑨